

# 2009년 노동시장 평가와 2010년 전망

동향분석실\*

## I. 경기침체와 일자리 감소

### 1. 2009년 노동시장 개관

2008년 하반기부터 불어 닥친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2009년 경제성장률은 0.2%에 그쳐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서비스업(1.0%)의 증가세는 크게 둔화되었으며 제조업(-1.8%)은 외환위기 때 -7.3%를 기록한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였다. 이에 따라 고용사정이 매우 악화되어 2009년 취업자 증가율은 -0.3%를 기록함으로써 외환위기 때 기록한 -6.0%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였다.

2009년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72천 명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상반기(1~6월)에 집중되었다(140천 명 감소). 이러한 취업자 감소는 외환위기와 카드대란으로 경기충격을 받았던 시기에 이은 세 번째 마이너스 증가일 뿐만 아니라 3만 명 감소에 그친 2003년 카드대란 시기보다 취업자 감소규모가 커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일자리가 사라졌다.

<표 1>을 통해 2009년 고용사정을 살펴보면, 2009년 경제활동참가율은 2008년보다 0.7%p 하락한 60.8%를 기록했으며, 남성(0.4%p)보다 여성의 하락폭(0.8%p)이 더욱 커 여성참가율 부진이 두드러졌다. 고령화의 영향을 통제한 15~64세 인구 경제활동참가율 또한 2008년보다 0.6%p 감소한 65.4%를 기록하였고, 여성의 경우는 0.8%p 감소하였다.

2009년 15세 이상 고용률은 2008년의 59.5%에서 0.9%p 감소한 58.6%를 기록하였고, 남성은 0.8%p 감소한 70.1%, 여성은 1.0%p 감소한 47.7%에 머물렀다. 15~64세 인구의 고용률은 2008년보다 0.9%p 감소한 62.9%를 기록하였으며, 남성과 여성 각각 0.8%p,

\* 한국노동연구원 동향분석실.

〈표 1〉 주요 고용지표 추이

(단위: 천 명, %, 전년(동기)대비)

		2005	2006	2007	2008	2009		
						상반기	하반기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	38,300 (1.5)	38,762 (1.2)	39,170 (1.1)	39,598 (1.1)	40,092 (1.2)	39,964 (1.2)	40,221 (1.3)
	경제활동인구	23,743 (1.4)	23,978 (1.0)	24,216 (1.0)	24,347 (0.5)	24,394 (0.2)	24,246 (0.0)	24,542 (0.4)
	취업자 (증가율)	22,856 (1.3)	23,151 (1.3)	23,433 (1.2)	23,577 (0.6)	23,506 (-0.3)	23,321 (-0.6)	23,691 (0.0)
	(증감수)	(299)	(295)	(282)	(145)	(-72)	(-140)	(-3)
	경제활동참가율	62.0 (74.6)	61.9 (74.1)	61.8 (74.0)	61.5 (73.5)	60.8 (73.1)	60.7 (73.0)	61.0 (73.2)
	(남성)	(50.1)	(50.3)	(50.2)	(50.0)	(49.2)	(48.9)	(49.4)
	(여성)							
	고용률	59.7 (71.6)	59.7 (71.3)	59.8 (71.3)	59.5 (70.9)	58.6 (70.1)	58.4 (69.8)	58.9 (70.3)
	(남성)	(48.4)	(48.8)	(48.9)	(48.7)	(47.7)	(47.4)	(48.0)
	(여성)							
실업자	887	827	783	769	889	926	852	
실업률	3.7 (4.0)	3.5 (3.8)	3.2 (3.7)	3.2 (3.6)	3.6 (4.1)	3.8 (4.3)	3.5 (3.9)	
(남성)	(3.4)	(2.9)	(2.6)	(2.6)	(3.0)	(3.2)	(2.9)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율)	14,557 (1.8)	14,784 (1.6)	14,954 (1.2)	15,251 (2.0)	15,698 (2.9)	15,718 (3.1)	15,678 (2.7)	
15 ~ 64세	경제활동참가율	66.3 (78.2)	66.2 (77.8)	66.2 (77.6)	66.0 (77.3)	65.4 (76.9)	65.3 (76.8)	65.5 (77.0)
	(남성)	(54.5)	(54.8)	(54.8)	(54.7)	(53.9)	(53.8)	(54.1)
(여성)								
고용률	63.7 (75.0)	63.8 (74.7)	63.9 (74.6)	63.8 (74.4)	62.9 (73.6)	62.7 (73.4)	63.2 (73.8)	
(남성)	(52.5)	(53.1)	(53.2)	(53.2)	(52.2)	(52.0)	(52.4)	
(여성)								

주: ( )안은 전년대비·전년동기대비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1.0%p 감소했다.

이처럼 각종 고용지표가 악화되었지만 2009년 실업자수는 2008년 대비 112천 명 증가한 889천 명을 기록했으며, 실업률은 2008년 대비 0.4%p 증가하여 3.6%에 머물렀다. 이에 비해 2009년 비경제활동인구는 2008년에 비해 447천 명(2.9%)이 증가하여 15,698천 명을 기록하였다. 2009년 일자리 감소는 비임금근로자, 특히 영세자영자와 일용직에서 두드러졌다. 반면에 괜찮은 일자리인 상용직 근로자는 전년 대비 383천 명 증가하여 예년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경기침체로 고용사정이 악화되자 정부는 일반회계 및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일자리 유지·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직접 지원하는 등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실시하였으며 2009년 하반기에 고용사정의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2009년 한 해 동안 사라진 일자리는 전년 대비 72천 개인데, 상반기에는 일자리가 140천 개 감소하였으나 하반기에는 3천 개 감소하는데 그쳤다. 이는 하반기에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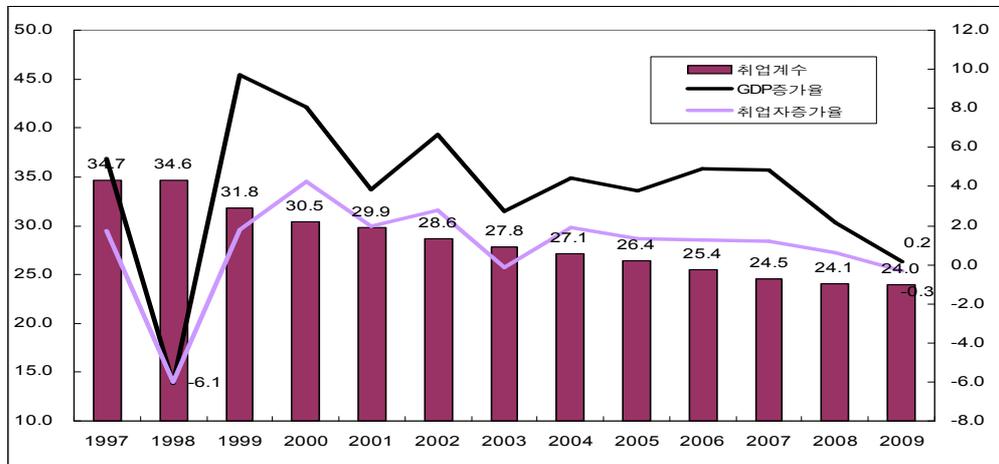
근로 프로젝트, 행정인턴사업 등에 힘입어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부문에서의 일자리가 전년동기대비 295천 개가 증가하는 등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정책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부표 1 참조).

## 2. 고용흡수력의 둔화 지속

2009년의 고용사정 악화는 경기침체에 기인하는 바가 크지만 우리 경제는 그 동안 지속적으로 고용흡수력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경기회복이 이루어지더라도 고용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경제의 고용흡수력을 나타내는 취업계수와 한 나라의 고용사정을 보여주는 고용률 추세를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1] 생산과 취업계수 추이

(단위: 명/10억, %)



주: 취업계수는 부가가치액 10억 원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수(=취업자수/실질GDP)를 의미함.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취업계수는 일정기간 동안 생산활동에 투입된 취업자수를 총산출액으로 나눈 수치로서 한 경제의 부가가치액 10억 원의 생산에 필요한 취업자수를 의미한다.<sup>1)</sup> 2009년 취업계수는 24.0명으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 건설업,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금융보험업, 도소매 및 숙박음식점업 등에서 하락하였으나 2009년 전반적인 일자리 부진에도 불구하고 일자리가 증가한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공공행

1) 취업계수의 하락은 GDP 1단위를 노동절약적 기술진보로 생산한다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어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표 2> 산업별 취업계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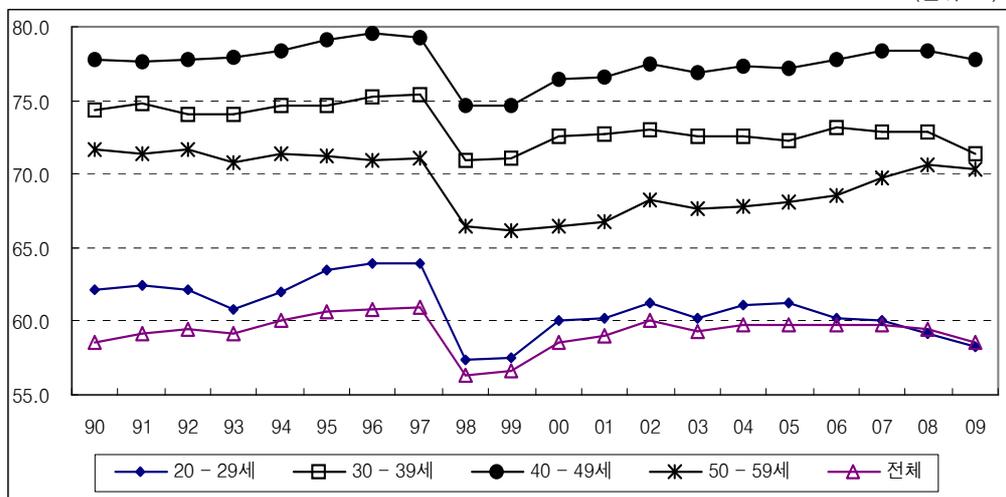
(단위: 명/10억)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 체	27.1	26.4	25.4	24.5	24.1	24.0
농림어업	71.5	70.1	67.9	63.1	58.6	56.3
광업	7.5	8.5	8.0	8.9	11.9	12.0
전기가스·수도사업	4.4	4.0	4.1	4.5	4.5	4.5
건설업	30.6	30.6	30.3	29.8	29.9	27.8
제조업	20.8	19.3	17.6	16.2	15.5	15.3
서비스업	33.2	32.8	32.2	31.4	31.1	31.1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72.6	70.4	67.1	63.4	62.0	60.9
운수 및 보관업	33.0	33.0	32.2	31.9	30.8	32.1
금융 및 보험업	14.6	14.0	14.1	13.1	12.8	11.5
부동산 및 임대업	7.4	7.8	7.7	7.7	7.4	7.5
정보통신업	17.8	17.6	17.0	16.0	15.4	15.8
사업서비스	34.8	36.1	37.8	39.6	40.4	42.7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16.4	16.4	15.9	15.3	15.8	18.7
교육서비스업	34.0	34.5	35.1	34.8	34.9	35.5
보건 및 사회복지	22.0	22.4	22.4	22.5	24.3	26.5
문화 및 오락서비스업	35.5	37.9	35.3	31.5	34.4	32.5
기타서비스	87.9	88.5	87.6	89.0	87.5	82.8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2] 연령별 고용률 추이

(단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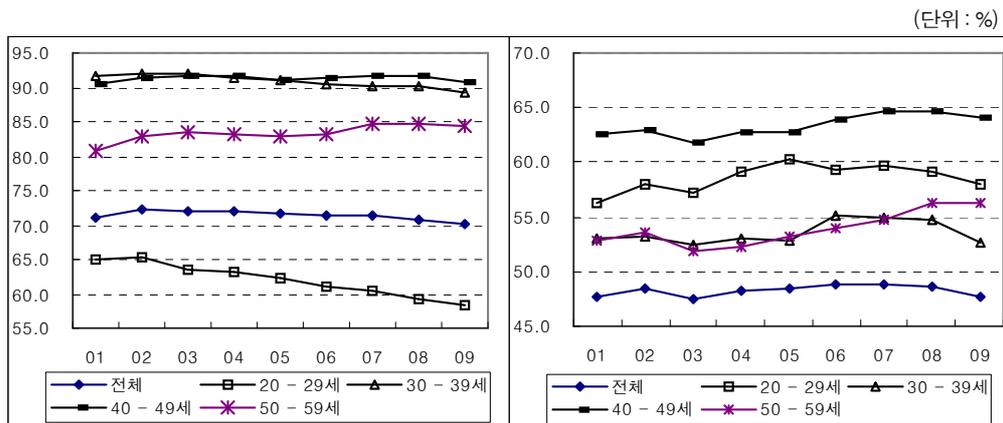
정 및 사회보장행정 부문에서는 취업계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회복세를 보이던 고용률은 2002년 정점에 도달한 이후 장기간 정체되는 국면을 지속하다가 2008년을 기점으로 다시 감소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2 참조).

고용률 감소를 연령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눈에 띄는 것은 20대의 감소추세이다. 20대는 2009년 경기충격과 상관없이 감소추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2005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20대 고용률의 정점이었던 1997년과 2009년의 격차는 무려 5.7%p나 되며 20대 고용률 감소는 남성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55%를 상회하는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여성 20대에 비해 외환위기 이전 70% 수준을 유지하던 남성 20대의 고용률은 꾸준히 감소해 2009년에는 58.4% 수준에 머물렀다. 50대의 증가추세도 경기 영향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이어가던 50대 고용률은 2009년 현재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거의 회복한 단계에 이르렀다(그림 3 참조).

한편, 지난 10여년간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오던 30~40대의 고용률은 2009년 들어 소폭 감소했으며 특히 여성 30대의 고용률 감소가 두드러졌다. 여성 30대 고용률의 감소는 경기침체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남성(좌) 및 여성(우)의 연령별 고용률 추이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II. 부문별 2009년 노동시장 평가

### 1. 내수산업 중심의 고용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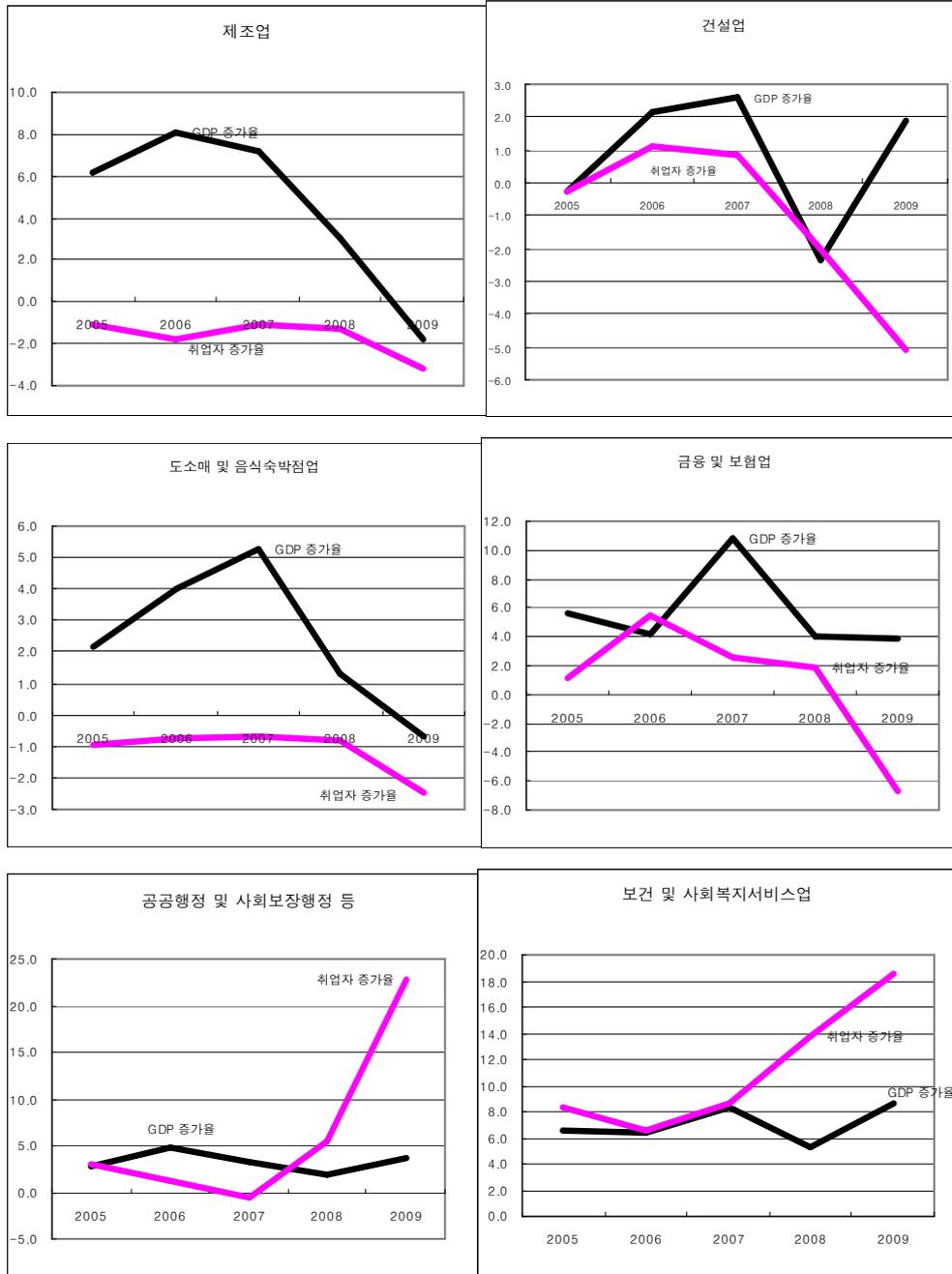
2009년 고용상황을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의 일자리 감소폭이 커 2009년 한 해에만 각각 126천 개, 91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하였다. 서비스업의 일자리는 전년대비 179천 개 증가하였는데, 이를 상·하반기로 나누어 보면 차이가 난다. 2008년 상반기에 서비스업 일자리는 전년동기대비 297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한 것에 비해 2009년 상반기에는 96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여 증가폭이 상당히 감소하였다. 이에 비해 2009년 하반기에는 261천 개의 일자리가 증가하여 2008년의 222천 개 증가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반기에 집중된 정부의 직접적 일자리 창출정책의 효과에 기인한 것이다.

2009년 산업별 고용동향을 들여다보면, 내수산업 중심의 일자리 감소가 눈에 띈다. 숙박 및 음식점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등 개인서비스업, 도매 및 소매업에서의 일자리가 전년대비 각각 107천 개, 86천 개, 32천 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나 주로 이들 산업에서 경기침체가 두드러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산업을 대상으로 상반기 일자리 유출입 분석을 한 결과,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자영업자,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의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라진 일자리의 거의 대부분이 1~4인 규모의 소규모 영세사업장이었다.

고용변동이 컸던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고용의 변화를 살펴보자. 제조업은 고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성장 또한 2009년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상용직 중심으로 인력운용이 이루어져 임시·일용직의 일자리 감소가 커 전체적으로 고용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에서는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가 무려 129천 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용위축이 컸던 도·소매 및 음식·숙박점업에서는 비임금근로자(104천 명) 중심으로 고용이 감소하였으며, 임시·일용직에서 75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저부가가치 산업인 도·소매 및 음식·숙박점업은 영세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산업으로 2008년부터 이어진 내수부진으로 고용위축이 가장 두드러졌다. 금융 및 보험업의 성장률은 3.9%로 전년에 비해 약간 하락하였으나 고용감소 폭은 매우 커 일자리가 55천 개 사라졌으며, 이 중 30천 개가 임시·일용직 일자리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정부의 직접 일자리 창출정책의 대상인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성장률은 소폭 증가한 반면, 일자리는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 주요 산업에서의 생산 및 고용변동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년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3〉 주요 산업별·고용형태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전 체	소 계	23,433 ( 282)	23,577 ( 145)	( 191)	( -98)	23,506 ( -72)	(-140)	(370)
	임금근로자	15,970 ( 420)	16,206 ( 236)	( 300)	(-172)	16,454 ( 247)	( 124)	(356)
	상용	8,620 ( 416)	9,007 ( 386)	( 441)	(-332)	9,390 ( 383)	( 316)	(328)
	임시·일용	7,350 ( 4)	7,200 (-150)	( -97)	( 89)	7,064 (-136)	( -71)	(138)
	비임금근로자	7,463 (-138)	7,371 (-92)	(-109)	( 75)	7,052 (-319)	(-264)	( 14)
건설업	소 계	1,849 ( 16)	1,812 (-37)	( -34)	( 40)	1,720 ( -91)	( -78)	(-37)
	임금근로자	1,421 ( 60)	1,421 ( -1)	( 8)	( 9)	1,361 ( -60)	( -37)	(-48)
	상용	453 ( 48)	508 ( 55)	( 69)	(-41)	520 ( 11)	( 27)	( -4)
	임시·일용	511 ( -17)	489 (-22)	( -4)	( 21)	426 ( -64)	( -34)	(-13)
	비임금근로자	428 (-44)	391 (-37)	( -7)	( 10)	359 ( -32)	( -14)	( -3)
제조업	소 계	7,554 (-65)	7,494 (-60)	( -26)	( 78)	7,269 (-225)	(-157)	(-20)
	임금근로자	3,422 (-23)	3,373 (-49)	( -41)	( 56)	3,277 (-96)	(-102)	(-34)
	상용	2,376 ( 60)	2,385 ( 9)	( 2)	(-16)	2,395 ( 10)	( 28)	( 4)
	임시·일용	1,046 (-84)	988 (-58)	(-40)	( 57)	882 (-106)	(-101)	(-21)
	비임금근로자	592 (-19)	589 (-3)	( 15)	( 22)	559 ( -30)	( -55)	( 14)
서비스업	소 계	12,908 ( 204)	13,043 ( 136)	( 297)	(-222)	13,207 ( 164)	( 96)	(349)
	임금근로자	8,775 ( 246)	8,922 ( 147)	( 322)	(-241)	9,215 ( 293)	( 249)	(443)
	상용	4,469 ( 217)	4,673 ( 204)	( 347)	(-263)	4,971 ( 298)	( 259)	(332)
	임시·일용	4,306 ( 29)	4,249 (-57)	( -50)	( -1)	4,245 ( -5)	( 54)	(170)
	비임금근로자	4,132 (-42)	4,121 (-12)	( -25)	( 18)	3,992 (-129)	(-153)	(-94)
도소매 및 숙박· 음식점업	소 계	5,722 (-38)	5,675 (-47)	( -38)	( 55)	5,536 (-139)	(-126)	(-50)
	임금근로자	3,097 ( 65)	3,086 (-11)	( 11)	( 32)	3,051 ( -35)	( -43)	( 12)
	상용	873 ( 79)	909 ( 36)	( 72)	( -1)	949 ( 40)	( 8)	( 68)
	임시·일용	2,224 (-14)	2,177 (-47)	(-100)	( 16)	2,103 ( -75)	( -29)	(-20)
	비임금근로자	2,625 (-102)	2,589 (-36)	( -49)	( 23)	2,485 (-104)	( -83)	(-62)
금융 및 보험업	소 계	806 ( 20)	821 ( 15)	( 32)	( 1)	766 ( -55)	( -59)	( 4)
	임금근로자	754 ( 22)	778 ( 24)	( 38)	( -9)	737 ( -41)	( -45)	( 7)
	상용	446 ( 3)	476 ( 30)	( 30)	( -30)	465 ( -11)	( 1)	( -8)
	임시·일용	308 ( 19)	302 ( -7)	( 8)	( 23)	272 ( -30)	( -45)	( 15)
	비임금근로자	52 ( -2)	43 ( -8)	( -7)	( 10)	29 ( -14)	( -14)	( -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소 계	740 ( 59)	842 ( 103)	( 94)	(-111)	998 ( 156)	( 146)	( 84)
	임금근로자	679 ( 56)	777 ( 98)	( 90)	(-105)	926 ( 149)	( 137)	( 82)
	상용	508 ( 52)	575 ( 66)	( 64)	( -68)	642 ( 67)	( 61)	( 44)
	임시·일용	171 ( 4)	202 ( 31)	( 28)	( -37)	284 ( 82)	( 68)	( 40)
	비임금근로자	60 ( 3)	65 ( 5)	( 4)	( -6)	72 ( 6)	( 9)	( 2)
협회 및 단체, 수 리 및 기타개인 서비스업	소 계	1,291 ( 72)	1,297 ( 6)	( 13)	( 1)	1,211 ( -86)	( -78)	( -0)
	임금근로자	647 ( 36)	660 ( 13)	( 16)	( -10)	649 ( -11)	( -23)	( 25)
	상용	262 ( 22)	267 ( 5)	( 7)	( -2)	274 ( 7)	( 1)	( 16)
	임시·일용	384 ( 15)	393 ( 8)	( 4)	( 2)	375 ( -18)	( -29)	( 7)
	비임금근로자	644 ( 36)	637 ( -7)	( -3)	( 11)	563 ( -74)	( -55)	(-26)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증감규모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 2. 영세자영자의 고용사정 악화

상용직의 증가세 유지에도 불구하고 2009년 일자리가 감소한 이유는 자영자의 노동 시장에서의 퇴출과 일용직의 감소이다. 성별로 나누어 보면, 남녀 모두 자영자와 일용직의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특히 남성 자영자의 감소폭이 커지고 있으며 주로 40대에 집중되었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한 자영업자의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금융위기 이후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양상이 지속됨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비임금근로자인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모두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노동력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무급가족종사자는 꾸준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고용원이 없는 자영자의 경우 2009년에 고용이 급격히 감소하였다(그림 5 참조).

2009년 일자리는 전년대비 72천 개 사라졌지만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는 무려 319천 개가 사라졌다. 이는 1990년 이래 가장 큰 수치이며, IMF 외환위기 때 비임금근로자의 일자리가 169천 개 사라진 것과 비교해도 상당한 규모이다. 비임금근로자의 사라진 일자리 중 자영자의 일자리가 249천 개에 이르고 있다. 이는 2003년 카드대란을 기점으로 계속적으로 이어오는 도소매업 자영업 부문의 구조조정이 2009년 이후 더욱 심화된 것으로 보인다.

규모별로 살펴보면, 1~4인 규모의 영세사업장의 도산이나 휴폐업이 상당해 이들 사업장에서 250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인 규모의 영세자영자의 사업장 특성을 보면, 내수산업 중심의 서비스업 부문에서의 일자리 감소가 두드러졌다.

〈표 4〉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수 및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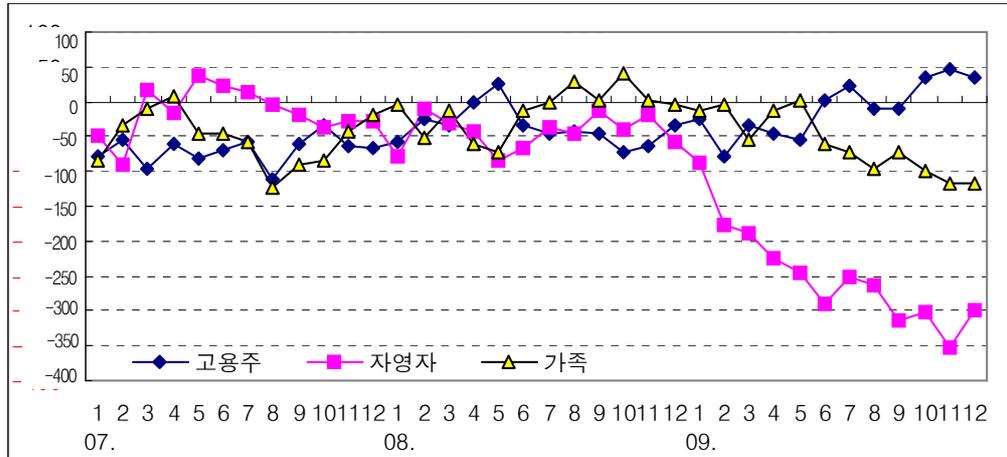
(단위 :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2009	
				상반기	하반기
전 체	23,433 ( 282)	23,577 (145)	23,506 ( -72)	23,321 (-140)	23,691 ( -3)
비임금근로자	7,462 (-138)	7,371 (-92)	7,052 (-319)	7,045 (-264)	7,059 (-374)
고용주	1,562 ( -70)	1,527 (-35)	1,517 ( -10)	1,499 ( -39)	1,535 ( 20)
자영자	4,487 ( -15)	4,443 (-44)	4,194 (-249)	4,204 (-202)	4,183 (-297)
가족종사자	1,413 ( -53)	1,401 (-12)	1,341 ( -60)	1,342 ( -23)	1,341 ( -96)
임금근로자	15,970 ( 420)	16,206 (236)	16,454 ( 247)	16,276 ( 124)	16,632 ( 371)
상용	8,620 ( 416)	9,007 (387)	9,390 ( 383)	9,225 ( 315)	9,554 ( 451)
임시	5,172 ( 30)	5,079 (-93)	5,101 ( 22)	5,032 ( -71)	5,171 ( 115)
일용	2,178 ( -26)	2,121 (-57)	1,963 (-158)	2,018 (-121)	1,907 (-195)

주 :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증감규모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5] 비임금근로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주로 30~4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협회 및 단체, 수리 등 기타 개인서비스업(56천 개), 숙박 및 음식점업(40천 개), 도매 및 소매업(38천 개) 등에서 영세자영업자의 도산 및 폐업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부표 3 참조).

한편, 노동시장의 동태적 이동을 살펴보기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의 횡단면 자료를 이용하여 취업 유입 및 유출을 살펴본 결과<sup>2)</sup>, 영세자영업자의 경우 유출은 전년대비 조금 높지만 상대적으로 유입규모가 급감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3. 여성의 고용감소폭이 더 커

2009년 고용사정 악화는 남성보다는 여성의 경우에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남성 취업자는 2008년 대비 31천 명이 증가한 반면, 여성 취업자는 102천 명이 감소해 취업자 감소를 주도했다. 2008년 하반기부터 감소세로 전환한 여성 취업자는 2008년 12월 이후 13개월째 마이너스 증가추세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6 참조). 한편 남성 취업자는 최대 감소폭이 46천 명을 넘지 않은 수준이었으며 하반기 이후 증가추세로 반

2)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를 대상으로 이직월이 조사전월과 일치하는 경우를 ‘취업에서 실업으로 유출’, ‘취업에서 비경제활동상태로 유출’로 인식하였으나 입직월이 조사월과 일치하는 경우는 단순한 직장 이동자(job to job mover)를 포함하므로 취업으로의 순유입 규모를 산출하기 곤란하다. 따라서 취업자의 순변화 규모에서 취업 유출자 규모를 더한 것을 취업 유입자 규모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단, 실업에서 취업으로 이동하였는지, 비경제활동상태에서 취업으로 이동하였는지를 판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표 5> 영세(1~4인)자영자의 일자리 특성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전 체	4,481 (-19)	4,443 (-38)	(-52)	(-24)	4,193 (-250)	(-276)	(-297)	
산업별	농림어업	1,010 (-54)	1,000 (-10)	(-24)	( 5)	963 (-37)	(-87)	(-47)
	광업	0 (-0)	0 ( 0)	(-0)	( 0)	1 ( 1)	( 0)	( 1)
	건설업	203 (-13)	188 (-15)	(-17)	(-14)	175 (-12)	(-16)	(-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0)	0 (-0)	(-1)	( 1)	0 (-0)	(-1)	(-0)
	제조업	226 (-2)	240 ( 14)	( 20)	( 9)	222 (-18)	(-14)	(-17)
	서비스업	3,041 ( 51)	3,014 (-27)	(-30)	(-25)	2,832 (-182)	(-158)	(-228)
	하수·폐기물 처리 등	3 (-0)	1 (-2)	(-2)	(-2)	2 ( 1)	( 0)	(-1)
	도매 및 소매업	1,012 (-65)	993 (-20)	(-23)	(-16)	955 (-38)	(-25)	(-47)
	운수업	535 ( 56)	534 (-2)	( 11)	(-14)	534 ( 1)	(-4)	( 1)
	숙박 및 음식점업	362 ( 4)	345 (-17)	(-15)	(-18)	306 (-40)	(-28)	(-41)
	출판, 영상, 방송통신 등	30 (-2)	36 ( 6)	( 6)	( 6)	25 (-11)	(-6)	(-12)
	금융 및 보험업	40 ( 1)	33 (-7)	(-8)	(-6)	20 (-13)	(-9)	(-1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40 ( 0)	142 ( 2)	(-6)	( 9)	127 (-15)	(-11)	(-28)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54 (-1)	60 ( 6)	( 0)	( 13)	54 (-6)	(-10)	(-10)
	사업시설관리 등	25 ( 3)	26 ( 1)	( 7)	(-5)	18 (-8)	(-4)	(-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0 (-0)	- (-0)	(-0)	(-)	0 ( 0)	( 0)	(-)
	교육서비스업	257 ( 18)	256 (-1)	(-2)	( 0)	263 ( 7)	(-4)	( 11)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6 (-1)	6 (-1)	( 1)	(-2)	6 ( 1)	( 2)	( 2)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81 ( 3)	96 ( 15)	( 20)	( 10)	90 (-5)	(-5)	(-10)
	협회 및 단체, 수리 등	492 ( 35)	484 (-8)	(-18)	( 3)	429 (-56)	(-56)	(-77)
가구내 고용활동 등	4 (-1)	3 (-1)	(-0)	(-2)	3 (-1)	( 1)	( 0)	
연령별	20대	185 (-10)	192 ( 8)	(-0)	( 15)	169 (-23)	(-22)	(-34)
	30대	731 (-28)	679 (-52)	(-42)	(-61)	603 (-77)	(-59)	(-78)
	40대	1,264 (-33)	1,249 (-15)	(-1)	(-28)	1,121 (-128)	(-95)	(-140)
	50대	1,142 ( 52)	1,148 ( 6)	(-9)	( 21)	1,172 ( 24)	(-10)	( 19)
	60세 이상	1,159 ( 0)	1,174 ( 15)	( 1)	( 30)	1,129 (-45)	(-90)	(-63)
성별	남자	3,010 ( 2)	3,014 ( 5)	(-11)	( 20)	2,884 (-131)	(-153)	(-177)
	여자	1,471 (-21)	1,428 (-43)	(-41)	(-44)	1,310 (-119)	(-123)	(-120)
전체(자영자)	4,487 (-15)	4,443 (-44)	(-52)	(-36)	4,194 (-249)	(-202)	(-297)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증감규모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6> 영세(1~4인) 자영자의 유출입

(단위: 천 명)

	2005	2006	2007	2008	상반기	하반기	2009	상반기	하반기
순변화	79	-8	-19	-38	-52	-24	-250	-202	-297
유 출	87	85	76	73	72	73	80	73	86
유 입	166	78	57	35	20	50	-170	-129	-21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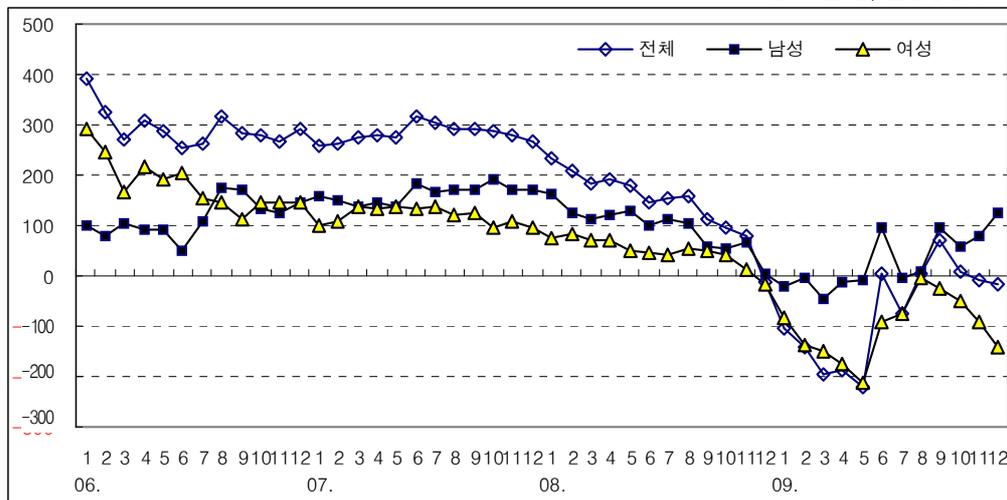
전하였다. 여성 취업자 감소는 남성에 비해 빨리 진행되었으며 회복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2009년 여성 취업자의 급감은 구조적으로 취약한 계층인 여성 고용의 안정성 부족이 경기충격의 영향으로 확연하게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여성 취업자 감소는 40대 이하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으며 30대의 감소가 심각하다. 이러한 현상은 외환위기나 카드대란 시기와 다른 양상임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때의 고용감소는 남성과 여성의 핵심연령층에 집중되었고, 카드대란 때는 청년층과 고령자에 집중되었던 것과 달리 이번 경기침체에 따른 고용감소는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계층에 집중되었다.

국내 경기가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일자리 회복은 상대적으로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 취약계층의 고용안정 및 소득지원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는 20대의 고용률 제고도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림 6] 성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7> 성별·연령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전체 취업자		-1,276	353	865	416	597	-30	418	299	295	282	144	-72
남성	전체	-636	107	433	194	363	87	162	137	114	163	96	31
	15~19세	-15	26	25	-22	-25	-24	-2	-5	-20	8	-15	-11
	20~29세	-280	-67	44	-62	-13	-94	-47	-90	-65	-38	-52	-42
	30~39세	-203	-22	64	3	32	10	-30	-44	-56	-63	-3	-67
	40~49세	-34	126	209	168	182	137	75	52	40	29	50	-13
	50~59세	-68	13	50	32	97	78	93	142	133	156	104	118
	60세 이상	-35	30	43	74	90	-20	73	82	82	71	12	46
여성	전체	-641	247	432	222	234	-117	256	162	180	120	48	-102
	15~19세	-39	-6	12	-8	-20	-17	-12	-10	-14	-6	-6	-1
	20~29세	-282	5	106	29	42	-58	34	-25	-80	-32	-45	-73
	30~39세	-176	23	56	25	14	-36	25	-15	69	-36	-23	-105
	40~49세	-34	118	180	115	113	38	100	46	63	48	14	-11
	50~59세	-69	29	21	28	42	-3	68	124	103	102	102	80
	60세 이상	-40	78	55	34	43	-42	43	41	39	45	5	9

주: ( )안은 전년대비 증감규모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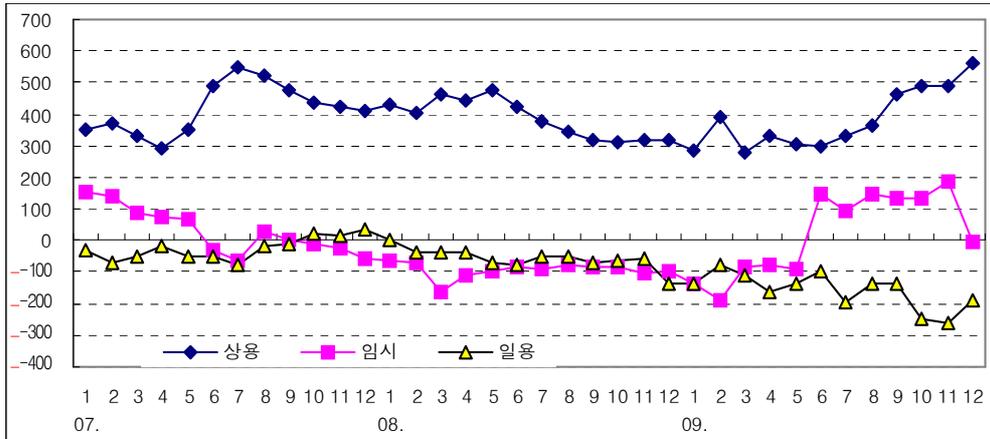
#### 4. 일용직의 고용감소 추이 지속

2009년 임금근로자는 상용직 증가세에 힘입어 전년대비 247천 명 증가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일자리 변동을 살펴보면, 상용직과 임시직 근로자는 각각 383천 명, 22천 명 증가한 반면, 일용직 근로자는 158천 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하반기 이후 일용직 근로자의 급격한 감소는 2003년 카드대란 시기에 303천 명 감소한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기록하였다. 또한 상용직 근로자의 증가는 대부분 30~40대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다(표 8 참조).

한편, 임시직 일자리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증가한 일자리의 대부분은 여성이며, 특히 60세 이상의 여성에서 증가가 두드러진다(표 8, 그림 7 참조). 2009년 임시직 일자리는 전년대비 22천 개 증가하였으며, 이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009년 하반기 임시직 일자리 증가를 들여다보면, 서비스업 부문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특히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부문에서 289천 개라는 일자리가 집중적으로 창출된 것을 <표 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정부가 하반기에 실시한 일

[그림 7] 임금근로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8> 성별·연령별·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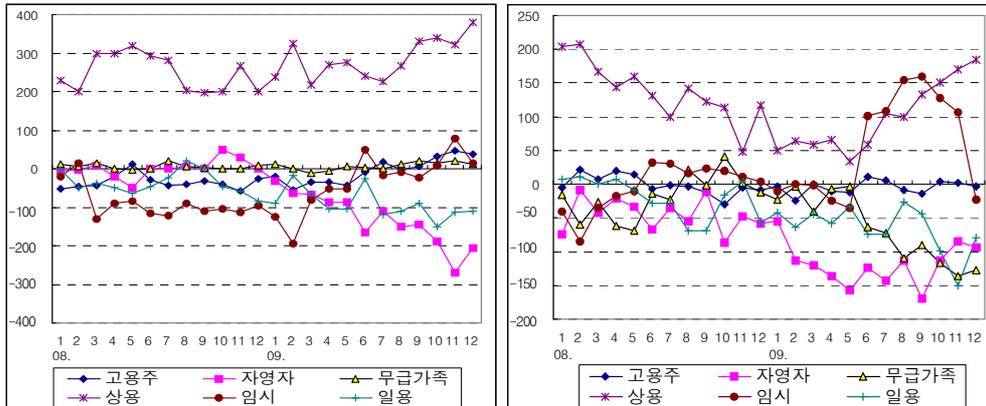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 체					남 성					여 성				
		2007	2008	2009	상	하	2007	2008	2009	상	하	2007	2008	2009	상	하
상 용	15~19세	-0	-2	-5	-7	-2	0	-0	-3	-5	-0	-0	-2	-2	-2	-2
	20~29세	88	-20	-67	-69	-65	51	25	-39	-24	-54	36	-45	-28	-45	-11
	30~39세	95	144	112	97	126	5	56	112	116	108	90	88	-0	-19	18
	40~49세	113	138	170	179	162	72	89	113	111	114	41	50	58	68	48
	50~59세	96	125	140	100	180	71	81	82	58	105	25	43	58	42	74
	60세 이상	24	2	33	16	51	17	-2	22	5	38	8	4	12	11	13
임 시	15~19세	-9	-4	6	-0	12	1	-3	1	1	1	-10	-1	5	-1	11
	20~29세	-120	-78	-8	-18	3	-61	-71	5	-14	25	-59	-7	-13	-4	-22
	30~39세	-38	-44	-90	-86	-95	-6	-19	-53	-54	-52	-33	-25	-37	-31	-43
	40~49세	68	-15	-11	-25	4	8	6	-27	-23	-32	60	-21	17	-2	36
	50~59세	52	32	34	16	52	18	-10	16	8	23	35	41	19	8	29
	60세 이상	77	16	90	42	138	39	9	25	7	43	38	8	65	35	95
일 용	15~19세	7	-11	-14	-23	-5	4	-7	-11	-14	-8	3	-4	-3	-9	3
	20~29세	-8	-10	-17	-23	-12	-12	-10	-7	-10	-3	4	0	-11	-12	-9
	30~39세	-53	-23	-61	-57	-65	-10	2	-39	-25	-54	-43	-25	-22	-33	-11
	40~49세	-8	-18	-32	-19	-46	9	-25	-15	-13	-16	-17	7	-18	-6	-30
	50~59세	31	18	-17	2	-36	20	9	-16	-3	-30	10	10	-1	4	-6
	60세 이상	5	-14	-16	-0	-32	10	-6	-5	-3	-6	-5	-8	-11	3	-2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8] 남성(좌) 및 여성(우) 종사상 지위별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자리정책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정부의 일자리정책 대상이 아닌 부문에서의 임시직 일자리는 감소하였다는 점이다.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부문을 제외하고 임시직 일자리를 보면, 2009년 한 해 동안 165천 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반기에 비해 하반기에 임시직 일자리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직 일자리의 감소는 제조업(-73천 개), 숙박 및 음식점업(-37천 개), 사업시설관리 등(-31천 개), 건설업(-30천 개), 금융 및 보험업(-28천 개) 순으로 나타났다.

2009년 일용직 일자리는 전년 대비 158천 개 사라졌으며 하반기에 무려 전년동기 대비 266천 개의 일용직이 노동시장에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사라진 일자리의 대부분은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일용직 일자리의 감소가 컸던 산업은 사업시설관리 등(43천 명), 건설업(43천 명), 제조업(32천 명) 순으로 나타났다.

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큰 건설업의 경우 43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의 일용직 일자리는 동절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상 상반기에는 일자리가 증가하는 추세이나 2009년 상반기부터 계속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상반기 대비 하반기 일자리는 32천 개 감소하였으며, 이 중 대부분인 31천 개가 여성 일자리였으며, 30~40대 연령층의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의 영향으로 하반기의 고용한파를 막는데는 성공했지만, 구조적으로 고용안정성이 취약한 계층은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 문제는 국내경기가 빠르게 회복세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취약계층의 회복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기 때문에 이에 따른 중장기적인 고용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희망근로와 청년인턴 등 정부의 적극적 대응의 영향으로 하반기 이후 임시직 근로자가 증가세로 반전하고 상용직도 증가추세를

〈표 9〉 임시직의 산업별 고용변동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전 체	5,172 ( 29)	5,079 (-93) ( -97)	( -89)	5,101 ( 22) ( -71)	( 115)
농림어업	36 ( 11)	30 ( -5) ( -2)	( -8)	40 ( 10) ( 11)	( 8)
광업	3 ( -0)	3 ( 0) ( 0)	( 0)	4 ( 1) ( 2)	( -0)
건설업	247 ( -4)	234 (-13) ( -4)	(-21)	204 ( -30) ( -34)	( -2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8 ( -0)	5 ( -2) ( -2)	( -3)	4 ( -1) ( -3)	( 1)
제조업	782 (-71)	733 (-49) ( -40)	(-57)	660 ( -73) (-101)	( -46)
서비스업	4,098 ( 94)	4,073 (-25) ( -50)	( 1)	4,189 ( 116) ( 54)	( 179)
하수·폐기물 처리 등	16 ( 3)	17 ( 2) ( 4)	( -0)	15 ( -3) ( -2)	( -4)
도매 및 소매업	970 ( -8)	912 (-58) ( -74)	(-41)	902 ( -10) ( -18)	( -1)
운수업	166 ( 6)	157 ( -9) ( 0)	(-18)	145 ( -12) ( -17)	( -6)
숙박 및 음식점업	675 ( 19)	675 ( -0) ( -26)	( 26)	638 ( -37) ( -11)	( -6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등	86 (-18)	82 ( -5) ( -9)	( -0)	86 ( 5) ( 13)	( -4)
금융 및 보험업	303 ( 19)	295 ( -7) ( 8)	(-23)	268 ( -28) ( -45)	( -10)
부동산업 및 임대업	157 ( 10)	152 ( -5) ( 6)	(-17)	149 ( -3) ( -6)	( 1)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99 (-10)	85 (-14) ( -11)	(-16)	79 ( -6) ( -4)	( -8)
사업시설관리 등	343 ( 29)	345 ( 3) ( 6)	( -1)	315 ( -31) ( -1)	( -60)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130 ( 16)	134 ( 4) ( 6)	( 2)	321 ( 187) ( 86)	( 289)
교육서비스업	502 ( -1)	515 ( 13) ( -4)	( 31)	528 ( 13) ( 17)	( 9)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6 ( 6)	188 ( 32) ( 28)	( 37)	262 ( 74) ( 68)	( 80)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96 ( -5)	110 ( 14) ( 5)	( 23)	103 ( -7) ( 7)	( -22)
협회 및 단체, 수리 등	315 ( 18)	316 ( 1) ( 4)	( -2)	295 ( -21) ( -29)	( -14)
가구내 고용활동 등	82 ( 11)	87 ( 5) ( 7)	( 2)	82 ( -5) ( -3)	( -7)
국제 및 외국기관	1 ( -1)	0 ( -1) ( -0)	( -1)	1 ( 0) ( 1)	( 0)
전체(공공행정 등 제외)	5,042 ( 14)	4,945 (-97) (-103)	(-91)	4,780 (-165) (-156)	(-174)

주:(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증감규모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이어갔지만, 여전히 취약계층의 고용사정은 좋지 않음이 확인되고 있다.

### 5.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

과거 생산가능인구에서 비경제활동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37~38%를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나 2009년에는 39.2%로 증가하여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인구가 크게 증가했다. 최근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동시에 감소하면서 실업률은 소폭 증가하는 것에 그치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노동시장 밖에 머무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 노동력의 유희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 100인 미만 규모에서의 일용직의 산업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하반기	
전 체	2,109 (-15)	2,055 (-55)	( -40)	(-70)	1,899 (-156)	(-116)	(-195)
농림어업	118 (-3)	112 (-6)	( 109)	( -4)	115 ( 3)	( 5)	( 2)
광업	1 ( 1)	1 (-0)	( 1)	( -0)	1 (-0)	( -0)	( -1)
건설업	714 ( 19)	674 (-40)	( 721)	(-26)	631 (-43)	( -32)	( -5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 0)	0 (-0)	( 1)	( -0)	0 (-0)	( -0)	( -0)
제조업	254 (-11)	244 (-10)	( 283)	(-18)	212 (-32)	( -30)	( -34)
서비스업	1,021 (-21)	1,023 ( 2)	(1,113)	(-21)	939 (-84)	( -59)	(-109)
하수·폐기물 처리 등	1 (-1)	1 ( 0)	( 1)	( 0)	1 (-0)	( 0)	( -0)
도매 및 소매업	227 ( 4)	233 ( 6)	( 248)	( -2)	223 (-9)	( -7)	( -11)
운수업	51 ( 3)	54 ( 2)	( 67)	( -1)	43 (-11)	( -9)	( -13)
숙박 및 음식점업	332 (-28)	340 ( 7)	( 360)	(-12)	322 (-17)	( -10)	( -2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등	12 (-6)	13 ( 2)	( 16)	( 2)	12 (-2)	( -4)	( 1)
금융 및 보험업	5 ( 1)	6 ( 1)	( 7)	( 2)	4 (-2)	( -1)	( -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3 (-3)	8 (-5)	( 1)	( -1)	14 ( 6)	( 6)	( 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15 ( 1)	10 (-5)	( 14)	( -4)	10 (-1)	( -2)	( 0)
사업시설관리 등	121 ( 19)	116 (-5)	( 156)	( -5)	73 (-43)	( -42)	( -45)
공공행정 및 사회복지행정	29 (-12)	27 (-2)	( 31)	( 4)	20 (-7)	( 4)	( -19)
교육서비스업	17 ( 0)	19 ( 2)	( 20)	( 2)	18 (-2)	( -1)	( -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3 (-2)	13 (-0)	( 4)	( 2)	21 ( 8)	( 10)	( 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43 (-7)	48 ( 5)	( 55)	( 4)	39 (-9)	( -6)	( -12)
협회 및 단체, 수리 등	67 (-2)	76 ( 9)	( 70)	( 11)	79 ( 3)	( 5)	( 1)
가구내 고용활동 등	74 ( 13)	59 (-15)	( 61)	(-22)	61 ( 2)	( -2)	( 6)
국제 및 외국기관	- ( -)	- ( -)	( -)	( -)	- ( -)	( -)	( -)
전체(일용직)	2,178 (-26)	2,121 (-57)	( -44)	(-71)	1,963 (-158)	(-121)	(-195)

주:(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증감규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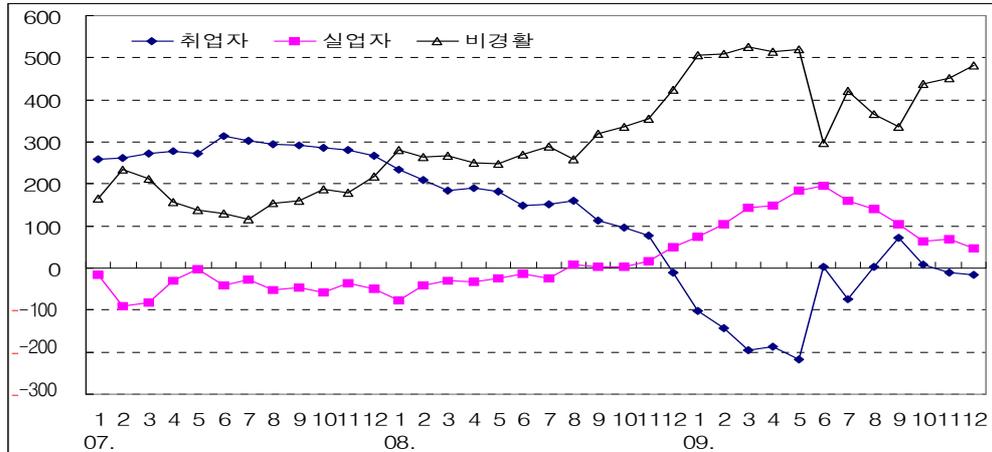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그림 9]는 최근 취업자의 감소와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가 동시에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일자리 창출 성과가 부진한 가운데 취업자 감소와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는 경기침체에 따른 실망근로자가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009년의 비경제활동인구의 증가를 사유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핵심연령계층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냥 쉬’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그냥 쉬다’고 응답한 자는 2008년 대비 123천 명이 증가한 규모이며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년 꾸준히 증가해 10%에 육박함을 보이고 있다(표 11 참조).

[그림 9]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월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11> 비경제활동 사유를 고려한 노동력 상태 추이

(단위: 천 명, %)

	2005	2006	2007	2008	2009
비경제활동인구	14,557 (100.0)	14,784 (100.0)	14,954 (100.0)	15,251 (100.0)	15,698 (100.0)
육아가사	6,726 (46.2)	6,773 (45.8)	6,839 (45.7)	6,963 (45.7)	7,151 (45.6)
재학학업	3,736 (25.7)	3,904 (26.4)	4,066 (27.2)	4,153 (27.2)	4,196 (26.7)
취업준비	456 (3.1)	525 (3.6)	546 (3.7)	598 (3.9)	591 (3.8)
그냥 쉬	1,238 (8.5)	1,277 (8.6)	1,321 (8.8)	1,352 (8.9)	1,475 (9.4)
기타	2,400 (16.5)	2,304 (15.6)	2,182 (14.6)	2,185 (14.3)	2,285 (14.6)

주: 취업준비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취업준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한편, 노동시장의 동태적인 이동을 살펴보기 위해 취업 유입·유출 분석을 시도하였다. 2009년 마이너스 취업자 증가를 보인 것은 취업상태에서 비취업(실업+비경제활동)으로 유출이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취업으로의 유입 규모도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취업 유출규모를 보면, 2008년 대비 83천 명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비경제활동으로의 유출에 의한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또 취업으로의 유입도 2008년 대비 133천 명이 감소해 경제위기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로 기업의 신규채용도 줄고, 노동시장 밖으로 이탈하는 근로자가 증가하여 고용성파가 부진했음을 알 수 있다.

<표 12> 취업 유입·유출 변화

(단위: 천 명)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취업자 순변화(A)	-30.5	418.5	299.1	294.7	282.0	144.5	-71.7
취업유출(취업→실업·비경활, B)	767.4	732.3 (-35.1)	720.8 (-11.5)	710.3 (-10.5)	654.6 (-55.7)	651.1 (-3.6)	734.1 (83.0)
취업유출(취업→실업)	172.7	174.7 ( 2.0)	171.7 ( -3.0)	163.4 ( -8.3)	152.2 (-11.2)	153.9 (1.6)	166.0 (12.2)
취업유출(취업→비경활)	594.7	557.5 (-37.1)	549.1 ( -8.5)	546.9 ( -2.1)	502.4 (-44.5)	497.2 (-5.2)	568.0 (70.8)
취업유입(실업·비경활→취업, A-B)	736.9	1150.8 (413.9)	1019.9 (-130.9)	1005.0 (-14.9)	936.6 (-68.4)	795.6 (-141.0)	662.4 (-133.2)

주:( )안은 전년대비 증감규모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표 13> 비경제활동인구의 전직유무 및 비자발적 사유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증감 %)

	규모				비중				증감		
	2006	2007	2008	2009	2006	2007	2008	2009	2007	2008	2009
비경제활동인구	14,783	14,954	15,251	15,698	(100.0)	(100.0)	(100.0)	(100.0)	171	297	447
1년 이상	7,922	8,048	8,247	8,441	( 53.6)	( 53.8)	( 54.1)	( 53.8)	126	199	195
1년 미만	2,958	2,823	2,723	2,924	( 20.0)	( 18.9)	( 17.9)	( 18.6)	-134	-100	200
비자발	995	892	888	1,033	( 33.7)	( 31.6)	( 32.6)	[ 35.3]	-103	-5	145
육아가사	533	458	453	507	[ 39.9]	[ 36.6]	[ 37.3]	[ 39.6]	-75	-5	54
재학학업	57	54	53	57	[ 10.5]	[ 10.0]	[ 11.1]	[ 11.2]	-3	-1	4
취업준비	28	32	29	44	[ 15.8]	[ 18.6]	[ 16.3]	[ 24.8]	4	-3	15
그냥 쉬	299	282	286	340	[ 47.8]	[ 46.3]	[ 45.6]	[ 48.6]	-17	4	54
기타	79	67	67	85	[ 28.4]	[ 26.7]	[ 29.6]	[ 33.0]	-12	1	18
없었음	3,904	4,083	4,281	4,333	( 26.4)	( 27.3)	( 28.1)	( 27.6)	179	197	52

주: 취업준비는 '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과 '취업준비'임.

( )안은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 ]안은 1년 미만 전직자 중 각 사유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2009년 비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인 자의 비중은 감소추세를 보여오다 2009년 들어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이는 금융위기 이후 기존의 감소추세를 뒤집고 증가한 것이며, 따라서 이들이 실업자로 곧바로 진입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또한 2009년에 전직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비자발적 사유<sup>3)</sup>를 보면, 2008년 대비 145천 명이 증가하여 1,003천 명이 비자발적 사유로

3) 비경제활동인구 중 직장을 그만둔 이유에서 ① 직장의 휴업, 폐업 ② 명예, 조기퇴직, 정리해고 ③ 임신 또는 계절적 일의 완료, ④ 일거리가 없어서 또는 사업경영 악화의 이유인 자들을 비자발적 사유로 분류함.

일을 그만둔 것으로 나타났다.

별다른 이유 없이 그냥 쉬는 비경제활동인구의 상당수가 일을 그만둔 지 1년 미만이며, 또한 비자발적 이유인 사람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취업준비를 이유로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 사람들의 비중과 규모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들은 불안정한 고용상태를 반복하는 계층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이며,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기보다는 비경제활동에서 바로 불안정한 취업상태로 이행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한편, 일을 그만둔 지 1년 이상된 비경제활동인구는 2008년 대비 195천 명이 증가하였으나 이는 예년의 추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러나 일을 그만둔 지 1년 이상인 자가 꾸준히 50%를 넘는다는 것은 장기 유희화 문제가 심각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III. 2010년 노동시장 전망

#### 1. 경기회복과 고용의 변화

2010년 경제성장률은 설비투자 등 내수 관련 지표가 개선되면서 전년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 민간소비 부문은 소비심라·소득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설비투자 증가율은 글로벌 수요증대, 기업수익성 개선 및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2009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투

<표 14> 경제성장 전망

(단위: %)

	2009					2010p(한국은행)			2010p(KDI)		
	1/4	2/4	3/4	4/4p	연간p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GDP성장률	-4.2	-2.2	0.9	6.0	0.2	5.9	3.4	4.6	6.9	4.3	5.5
민간소비	-4.4	-0.8	0.8	5.9	0.3	4.3	2.9	3.6	5.7	4.2	4.8
건설투자	1.6	3.7	2.7	4.0	3.1	2.2	2.7	2.5	2.2	3.8	3.1
설비투자	-23.5	-15.9	-7.4	10.2	-9.6	18.9	5.2	11.4	25.9	9.7	17.1
상품수출	-14.1	-4.2	1.8	16.9	-0.1	13.5	5.7	9.3	12.3	4.1	7.9
상품수입	-17.4	-14.3	-7.9	11.8	-7.3	17.3	9.3	13.0	16.3	6.8	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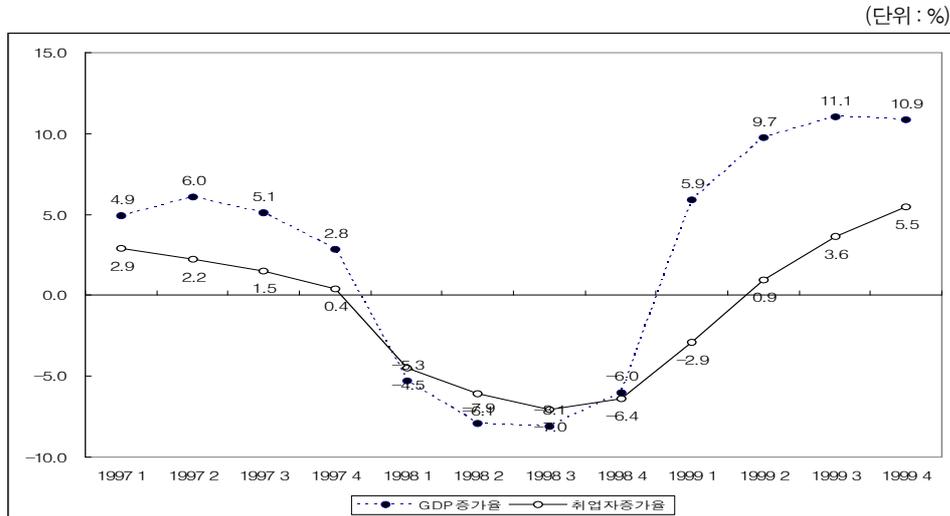
주: p는 전망치임.

자료: 한국은행, 「2010년 경제전망」, 2009. 12 및 KDI, 「KDI 경제전망」 2009. 11.

자 증가율은 증가세가 유지되지만 증가폭은 전년보다 낮을 것으로 보이며, 상품수출 증가율은 세계경제의 점진적 회복에 따라 2009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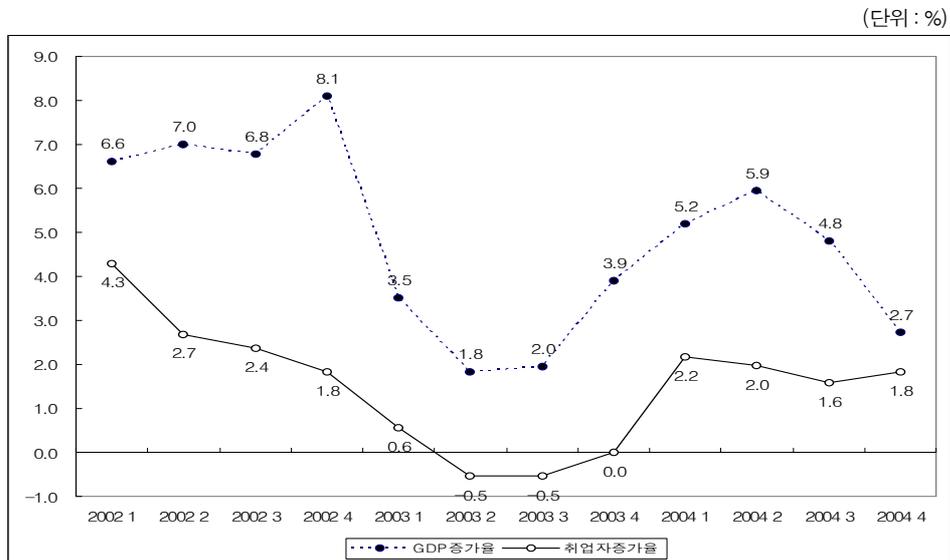
그러나 이러한 경기회복의 조짐에도 불구하고 고용사정은 그다지 밝지 않을 전망이

[그림 10] 외환위기 당시 GDP, 취업자 증가율



자료 : 한국은행, KOSIS.

[그림 11] 2003년 카드대란 당시 GDP, 취업자 증가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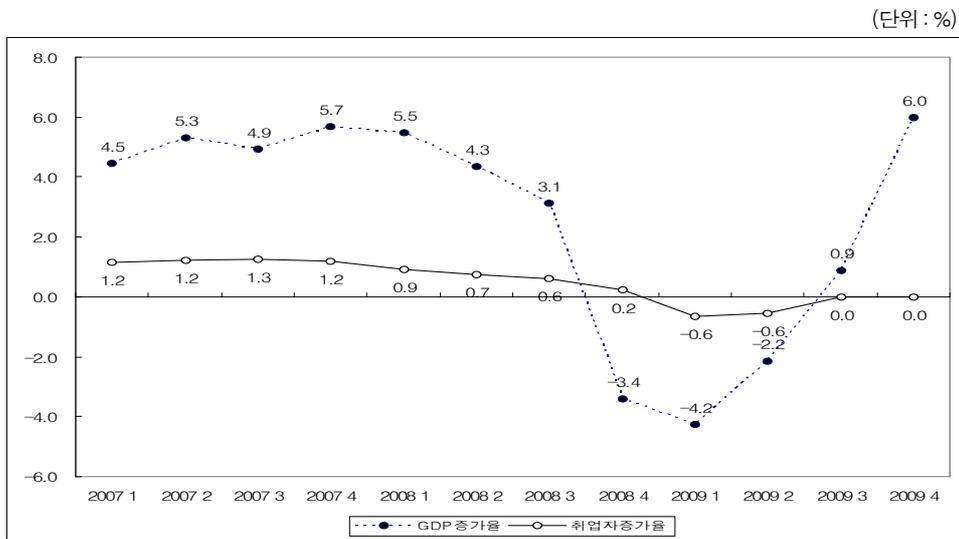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KOSIS.

다. 일반적으로 경기에 대한 노동시장의 후행성은 경기후퇴기보다 경기회복기에 더 뚜렷이 나타나는데, 1997년 외환위기와 2003년 카드대란 시기를 나타낸 [그림 10]과 [그림 11]을 보면 이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12]에서 보듯이 최근에는 경기회복에 대한 노동시장의 후행기간이 이전보다 길어졌으며 이와 동시에 노동시장의 변동폭도 이전 시기보다 작아져 경기회복기에도 취업자 증가율은 1% 초반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추세는 2010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비록 2010년 상반기부터 경기가 급격히 회복된다 하더라도 노동시장은 이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정체된 상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 2010년에도 정부의 직접일자리 정책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12] 2007년 이후 GDP, 취업자 증가율



2010년 취업자수는 2009년의 고용감소에 기인한 통계적 반동효과 및 2009년 상반기에 예상되는 정부의 직접일자리 정책의 효과로 증가세로 반전하겠지만 취업자 규모면에서는 고용회복이 더디게 진행될 가능성이 크고, 고용취약계층의 고용불안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이다.

고용회복은 2010년 하반기 들어 본격화될 전망이나 2009년 하반기에 확대된 희망근로 등 직접일자리 정책의 영향으로 취업자 규모가 증가한 것을 감안하면 기저 효과 등으로 취업자 증가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다. 2009년 하반기에 재정을 통한 일자리 지원사업에 따른 공공부문의 일자리 증대효과로 취업자수가 증가세로 돌아섰으나 2010년 하반기에는 이러한 효과가 상쇄되어 민간부문에서 적극적으로 노동수요가 확대되지 않

는다면 2010년 하반기의 취업자 증가폭이 상반기보다 낮게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2. 2010년 고용전망 : 취업자수는 20만 명 내외 증가

2010년 경제성장률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경제성장률이 4.6%일 경우와 5.5%일 경우의 두 가지 시나리오로 노동시장을 전망하였다. 성장률이 4.6%일 때 취업자수는 194천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활동참가율은 60.8%, 실업률은 3.7%, 고용률은 58.5%로 전망된다. 취업자 증가율은 2009년의 고용상황 및 정부의 일자리 정책 등을 감안할 때 상반기가 하반기에 비해 보다 클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질적인 고용지표는 하반기 들어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률이 5.5%일 경우를 가정하면 취업자수는 234천 명 증가, 경제활동참가율 60.9%, 실업률 3.6%, 고용률은 58.6%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자수는 경기가 회복됨에 따라 부가노동효과 등으로 경제활동인구 유입규모가 늘어날 전망이어서 경제성장률 4.6%와 5.5%일 경우 모두 2009년(889천 명)보다 많은 917천 명 및 899천 명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저고용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고용구조를 세부적으로 보면, 상용직은 임시·일용직에 비해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특성으로 최근 경기침체에 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임시·일용직은 경기변화에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들어 경기변화에 관계없이 정체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취업과 비취업의 반복에 따른 고용불안, 낮은 소득수준

<표 15> 2010년 고용전망

(단위: 천 명, %)

	2009	2010p(경제성장률 4.6% 가정)			2010p(경제성장률 5.5% 가정)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경제성장률	0.2	4.6	5.9	3.4	5.5	6.8	4.3
생산가능인구	40,092	40,493	40,364	40,623	40,493	40,364	40,623
경제활동인구	24,394	24,617	24,489	24,745	24,639	24,513	24,765
경제활동참가율	60.8	60.8	60.7	60.9	60.9	60.7	61.0
취업자	23,506	23,700	23,545	23,855	23,740	23,577	23,903
(증가율)	-0.3	0.8	1.0	0.7	1.0	1.1	0.9
(증감수)	-72	194	224	164	234	256	212
실업자수	889	917	944	890	899	936	862
실업률	3.6	3.7	3.9	3.6	3.6	3.8	3.5
고용률	58.6	58.5	58.3	58.7	58.6	58.4	58.8

주: p는 전망치임.

등 취약계층의 특성을 갖고 있고 경기충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만큼 임시·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소득지원적 일자리 창출방안이 조속히 마련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이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동시장 대책이 필요하다. 또한 경기가 회복되더라도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이 적극적으로 뒤따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년층의 고용사정 악화는 2010년에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2009년의 청년층 미취업자에 2010년 신규노동시장 진출자가 더해지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고용회복이 하반기 이후에 본격화될 전망이어서 청년층의 일자리 확대를 위한 대책도 시급하다. 누적효과를 제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함으로써 특정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단절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고용률 제고를 위한 여성인력의 활용방안의 모색이 중요한데, 특히 비경제활동인구로 유입되는 여성노동력의 노동시장 유인방안을 적극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KL**

〈부표 1〉 취업자의 산업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하반기	
전 체	23,433 (282)	23,577 (145)	(191)	( 98)	23,506 ( -72)	(-140)	( -3)
농림어업	1,723 (-58)	1,686 (-37)	(-59)	(-15)	1,648 ( -38)	( -5)	( -71)
광업	16 ( 1)	23 ( 6)	( 7)	( 6)	23 ( -0)	( -1)	( 0)
건설업	1,849 ( 16)	1,812 (-37)	(-34)	(-40)	1,720 ( -91)	( -78)	(-10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86 ( 10)	90 ( 4)	( 6)	( 3)	96 ( 5)	( 5)	( 6)
제조업	4,014 (-42)	3,963 (-52)	(-26)	(-78)	3,836 (-126)	(-157)	( -96)
서비스업	15,745 (356)	16,004 (260)	(297)	(222)	16,183 ( 179)	( 96)	( 261)
하수·폐기물 처리 등	61 ( -0)	66 ( 5)	( 6)	( 3)	72 ( 6)	( 8)	( 3)
도매 및 소매업	3,673 (-38)	3,631 (-42)	(-31)	(-52)	3,600 ( -32)	( -45)	( -18)
운수업	1,247 ( 54)	1,248 ( 1)	( 14)	(-13)	1,247 ( -1)	( -15)	( 13)
숙박 및 음식점업	2,049 ( -0)	2,044 ( -5)	( -7)	( -3)	1,936 (-107)	( -81)	(-13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등	634 (-17)	627 ( -7)	( 10)	(-24)	652 ( 25)	( 7)	( 44)
금융 및 보험업	806 ( 20)	821 ( 15)	( 32)	( -1)	766 ( -55)	( -59)	( -52)
부동산업 및 임대업	505 ( 6)	489 (-17)	(-24)	( -9)	500 ( 12)	( 18)	( 6)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702 ( 21)	756 ( 55)	( 21)	( 88)	844 ( 87)	( 95)	( 80)
사업시설관리 등	954 (135)	974 ( 20)	( 36)	( 4)	944 ( -29)	( -22)	( -36)
공공행정 및 사회보장행정	797 ( -5)	840 ( 43)	( 57)	( 30)	1,032 ( 191)	( 88)	( 295)
교육서비스업	1,740 ( 38)	1,784 ( 44)	( 45)	( 43)	1,831 ( 48)	( 32)	( 6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40 ( 59)	842 (103)	( 94)	(111)	998 ( 156)	( 146)	( 165)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서비스업	371 ( -8)	419 ( 48)	( 30)	( 66)	390 ( -28)	( 12)	( -69)
협회 및 단체, 수리 등	1,291 ( 72)	1,297 ( 6)	( 13)	( -1)	1,211 ( -86)	( -78)	( -93)
가구내 고용활동 등	161 ( 23)	150 (-11)	( -1)	(-21)	147 ( -3)	( -7)	( 0)
국제 및 외국기관	15 ( -4)	16 ( 1)	( 1)	( 1)	12 ( -4)	( -3)	( -5)

주:(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증감규모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부표 2> 성별·연령별·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증감)

		전 체					남 성					여 성				
		2007	2008	2009	상	하	2007	2008	2009	상	하	2007	2008	2009	상	하
상 용	15~19세	-0	-2	-5	-7	-2	0	-0	-3	-5	-0	-0	-2	-2	-2	-2
	20~29세	88	-20	-67	-69	-65	51	25	-39	-24	-54	36	-45	-28	-45	-11
	30~39세	95	144	112	97	126	5	56	112	116	108	90	88	-0	-19	18
	40~49세	113	138	170	179	162	72	89	113	111	114	41	50	58	68	48
	50~59세	96	125	140	100	180	71	81	82	58	105	25	43	58	42	74
	60세 이상	24	2	33	16	51	17	-2	22	5	38	8	4	12	11	13
임 시	15~19세	-9	-4	6	-0	12	1	-3	1	1	1	-10	-1	5	-1	11
	20~29세	-120	-78	-8	-18	3	-61	-71	5	-14	25	-59	-7	-13	-4	-22
	30~39세	-38	-44	-90	-86	-95	-6	-19	-53	-54	-52	-33	-25	-37	-31	-43
	40~49세	68	-15	-11	-25	4	8	6	-27	-23	-32	60	-21	17	-2	36
	50~59세	52	32	34	16	52	18	-10	16	8	23	35	41	19	8	29
	60세 이상	77	16	90	42	138	39	9	25	7	43	38	8	65	35	95
일 용	15~19세	7	-11	-14	-23	-5	4	-7	-11	-14	-8	3	-4	-3	-9	3
	20~29세	-8	-10	-17	-23	-12	-12	-10	-7	-10	-3	4	0	-11	-12	-9
	30~39세	-53	-23	-61	-57	-65	-10	2	-39	-25	-54	-43	-25	-22	-33	-11
	40~49세	-8	-18	-32	-19	-46	9	-25	-15	-13	-16	-17	7	-18	-6	-30
	50~59세	31	18	-17	2	-36	20	9	-16	-3	-30	10	10	-1	4	-6
	60세 이상	5	-14	-16	-0	-32	10	-6	-5	-3	-6	-5	-8	-11	3	-26
고 용 주	15~19세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29세	2	9	-3	-6	-1	-4	4	3	-0	7	6	4	-7	-6	-8
	30~39세	-42	-40	-30	-39	-20	-49	-28	-25	-34	-15	8	-12	-5	-5	-4
	40~49세	-52	-17	4	-9	17	-50	-7	-4	-12	4	-2	-10	8	2	13
	50~59세	6	15	19	16	22	9	2	21	15	27	-4	13	-2	1	-5
	60세 이상	16	-2	-0	-1	1	11	-6	-1	-1	-0	5	4	0	0	1
자 영 자	15~19세	3	-1	-1	-3	0	2	-2	-0	1	-1	1	1	-1	-4	1
	20~29세	-13	9	-21	-8	-34	-10	2	-9	-2	-15	-3	6	-13	-6	-19
	30~39세	-27	-53	-76	-75	-78	-9	-23	-60	-52	-69	-18	-31	-16	-23	-9
	40~49세	-32	-16	-129	-117	-140	-11	-10	-81	-69	-94	-21	-6	-47	-48	-46
	50~59세	53	4	23	29	18	38	18	15	17	13	15	-14	9	11	6
	60세 이상	1	14	-45	-27	-63	-5	16	5	20	-11	6	-2	-50	-48	-52
무 급 가 족	15~19세	1	-2	1	1	1	1	-2	1	1	2	0	0	-0	0	-1
	20~29세	-17	-8	2	0	4	-2	-4	4	0	8	-15	-4	-2	0	-4
	30~39세	-35	-9	-27	-27	-27	5	8	-1	-1	-2	-41	-17	-26	-26	-25
	40~49세	-13	-8	-27	-17	-36	1	-3	2	-1	6	-14	-5	-29	-16	-42
	50~59세	20	13	-2	12	-16	0	4	1	1	0	20	9	-2	11	-16
	60세 이상	-8	1	-7	7	-22	-1	2	-0	0	-1	-8	-1	-7	7	-20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부표 3> 기업규모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취업자>							
전 체	23,433 ( 282)	23,577 (145)	( 191)	( 98)	23,506 ( -72)	(-140)	( -3)
100인 미만	20,037 ( 324)	20,116 ( 78)	( 138)	( 19)	19,890 (-226)	(-261)	(-191)
1~4인	10,056 ( 5)	9,976 (-80)	( -87)	(-72)	9,536 (-440)	(-360)	(-520)
5~9인	3,189 ( 87)	3,219 ( 30)	( 35)	( 25)	3,199 ( -20)	( -45)	( 5)
10~29인	3,650 ( 124)	3,722 ( 73)	( 103)	( 43)	3,842 ( 120)	( 103)	( 137)
30~99인	3,143 ( 109)	3,199 ( 56)	( 88)	( 23)	3,313 ( 114)	( 41)	( 186)
100인 이상	3,396 ( -42)	3,462 ( 66)	( 53)	( 79)	3,616 ( 154)	( 120)	( 188)
100~299인	1,557 ( 13)	1,595 ( 38)	( 18)	( 58)	1,633 ( 37)	( 23)	( 51)
300인 이상	1,839 ( -55)	1,866 ( 28)	( 35)	( 20)	1,983 ( 117)	( 97)	( 137)
<임금근로자>							
전 체	15,970 ( 420)	16,206 (236)	( 300)	(172)	16,454 ( 247)	( 124)	( 370)
100인 미만	12,579 ( 460)	12,747 (168)	( 245)	( 90)	12,839 ( 92)	( 4)	( 180)
1~4인	3,229 ( 100)	3,220 ( -9)	( -0)	(-18)	3,090 (-130)	(-119)	(-141)
5~9인	2,727 ( 86)	2,785 ( 58)	( 71)	( 45)	2,763 ( -23)	( -31)	( -14)
10~29인	3,505 ( 159)	3,567 ( 62)	( 87)	( 36)	3,701 ( 134)	( 116)	( 152)
30~99인	3,118 ( 115)	3,176 ( 57)	( 88)	( 26)	3,286 ( 111)	( 38)	( 184)
100인 이상	3,391 ( -41)	3,459 ( 69)	( 55)	( 82)	3,614 ( 155)	( 120)	( 190)
100~299인	1,554 ( 15)	1,594 ( 40)	( 19)	( 60)	1,631 ( 37)	( 22)	( 53)
300인 이상	1,837 ( -55)	1,866 ( 29)	( 36)	( 22)	1,983 ( 118)	( 98)	( 138)
<비임금근로자>							
전 체	7,463 (-138)	7,371 (-92)	(-109)	(-75)	7,052 (-319)	(-264)	(-374)
100인 미만	7,458 (-136)	7,368 (-89)	(-107)	(-71)	7,050 (-318)	(-265)	(-372)
1~4인	6,826 ( -96)	6,756 (-71)	( -87)	(-54)	6,446 (-310)	(-241)	(-379)
5~9인	462 ( 1)	434 (-28)	( -36)	(-20)	436 ( 3)	( -14)	( 19)
10~29인	145 ( -35)	156 ( 11)	( 16)	(6)	142 ( -14)	( -13)	( -15)
30~99인	25 ( -6)	23 ( -2)	( -0)	(-3)	26 ( 3)	( 4)	( 3)
100인 이상	5 ( -1)	2 ( -3)	( -2)	(-4)	2 ( -1)	( 0)	( -2)
100~299인	3 ( -2)	2 ( -2)	( -1)	(-2)	2 ( 0)	( 1)	( -1)
300인 이상	2 ( 0)	1 ( -1)	( -1)	(-1)	0 ( -1)	( -1)	( -1)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증감규모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부표 4〉 임금근로자의 기업규모별·종사상 지위별 고용증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임금근로자〉							
전 체	15,970 (420)	16,206 (236)	(300)	(172)	16,454 (247)	(124)	(370)
100인 미만	12,579 (460)	12,747 (168)	(245)	(90)	12,839 (92)	(4)	(180)
1~4인	3,229 (100)	3,220 (-9)	(-0)	(-18)	3,090 (-130)	(-119)	(-141)
5~9인	2,727 (86)	2,785 (58)	(71)	(45)	2,763 (-23)	(-31)	(-14)
10~29인	3,505 (159)	3,567 (62)	(87)	(36)	3,701 (134)	(116)	(152)
30~99인	3,118 (115)	3,176 (57)	(88)	(26)	3,286 (111)	(38)	(184)
100인 이상	3,391 (-41)	3,459 (69)	(55)	(82)	3,614 (155)	(120)	(190)
100~299인	1,554 (15)	1,594 (40)	(19)	(60)	1,631 (37)	(22)	(53)
300인 이상	1,837 (-55)	1,866 (29)	(36)	(22)	1,983 (118)	(98)	(138)
〈상용직〉							
전 체	8,620 (416)	9,007 (386)	(441)	(332)	9,390 (383)	(316)	(451)
100인 미만	5,660 (396)	5,970 (310)	(363)	(256)	6,225 (255)	(194)	(316)
1~4인	510 (57)	545 (34)	(43)	(26)	581 (37)	(13)	(61)
5~9인	954 (70)	1,036 (82)	(76)	(89)	1,088 (52)	(53)	(50)
10~29인	1,933 (121)	2,056 (123)	(144)	(102)	2,153 (97)	(100)	(95)
30~99인	2,263 (148)	2,333 (70)	(101)	(39)	2,402 (69)	(28)	(110)
100인 이상	2,960 (20)	3,037 (77)	(78)	(76)	3,165 (128)	(122)	(135)
100~299인	1,278 (44)	1,334 (56)	(45)	(68)	1,377 (43)	(41)	(44)
300인 이상	1,683 (-24)	1,703 (20)	(33)	(8)	1,788 (85)	(80)	(90)
〈임시직〉							
전 체	5,172 (29)	5,079 (-93)	(-97)	(-89)	5,101 (22)	(-71)	(115)
100인 미만	4,810 (80)	4,723 (-87)	(-78)	(-96)	4,716 (-7)	(-74)	(60)
1~4인	1,727 (29)	1,725 (-2)	(-22)	(19)	1,632 (-93)	(-61)	(-126)
5~9인	1,195 (5)	1,158 (-36)	(-25)	(-47)	1,121 (-37)	(-66)	(-8)
10~29인	1,166 (47)	1,127 (-40)	(-23)	(-56)	1,203 (76)	(40)	(113)
30~99인	723 (-2)	713 (-10)	(-7)	(-12)	760 (47)	(13)	(80)
100인 이상	362 (-50)	357 (-6)	(-19)	(7)	386 (29)	(3)	(55)
100~299인	231 (-26)	215 (-15)	(-23)	(-8)	210 (-5)	(-17)	(7)
300인 이상	132 (-24)	141 (10)	(4)	(15)	175 (34)	(20)	(48)
〈일용직〉							
전 체	2,178 (-26)	2,121 (-57)	(-44)	(-71)	1,963 (-158)	(-121)	(-195)
100인 미만	2,109 (-15)	2,055 (-55)	(-40)	(-70)	1,899 (-156)	(-116)	(-195)
1~4인	992 (14)	950 (-42)	(-21)	(-63)	877 (-73)	(-71)	(-76)
5~9인	578 (10)	591 (12)	(20)	(4)	553 (-38)	(-19)	(-57)
10~29인	406 (-9)	384 (-22)	(-34)	(-10)	345 (-40)	(-23)	(-56)
30~99인	133 (-31)	130 (-3)	(-6)	(-0)	124 (-5)	(-3)	(-7)
100인 이상	68 (-10)	66 (-2)	(-4)	(-1)	64 (-2)	(-5)	(0)
100~299인	46 (-4)	45 (-1)	(-3)	(1)	44 (-0)	(-2)	(1)
300인 이상	23 (-7)	21 (-1)	(-1)	(-1)	20 (-2)	(-3)	(-1)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증감규모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부표 5> 비임금근로자의 기업규모별·종사상 지위별 고용증감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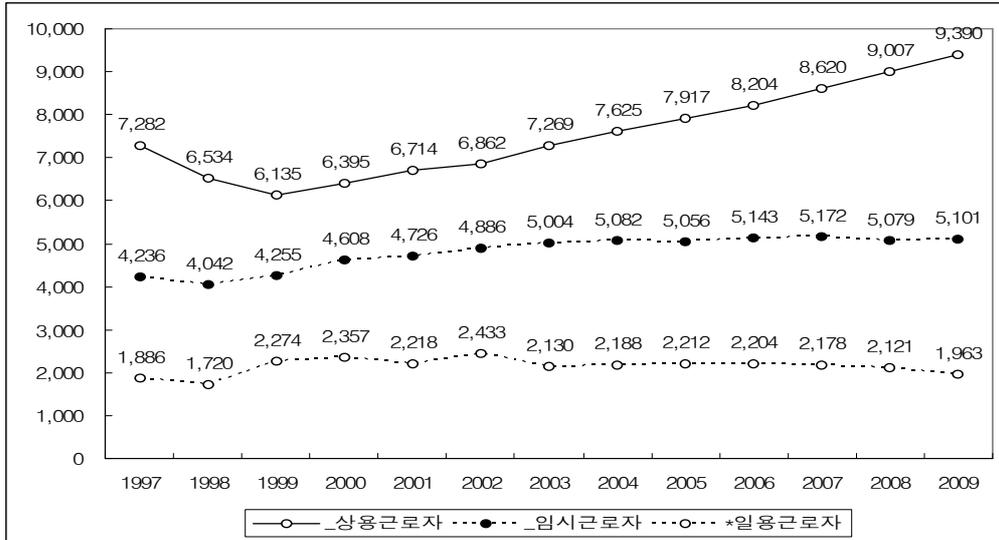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2007	2008		2009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비임금근로자>							
전 체	7,463 (-138)	7,371 (-92)	(-109)	(-75)	7,052 (-319)	(-264)	(-374)
100인 미만	7,458 (-136)	7,368 (-89)	(-107)	(-71)	7,050 (-318)	(-265)	(-372)
1~4인	6,826 (-96)	6,756 (-71)	(-87)	(-54)	6,446 (-310)	(-241)	(-379)
5~9인	462 ( 1)	434 (-28)	(-36)	(-20)	436 ( 3)	(-14)	( 19)
10~29인	145 (-35)	156 ( 11)	( 16)	( 6)	142 (-14)	(-13)	(-15)
30~99인	25 (-6)	23 (-2)	(-0)	(-3)	26 ( 3)	( 4)	( 3)
100인 이상	5 (-1)	2 (-3)	(-2)	(-4)	2 (-1)	( 0)	(-2)
100~299인	3 (-2)	2 (-2)	(-1)	(-2)	2 ( 0)	( 1)	(-1)
300인 이상	2 ( 0)	1 (-1)	(-1)	(-1)	0 (-1)	(-1)	(-1)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고용주)>							
전 체	1,562 (-70)	1,527 (-35)	(-20)	(-50)	1,517 (-10)	(-39)	( 20)
100인 미만	1,560 (-68)	1,525 (-34)	(-19)	(-49)	1,516 (-10)	(-40)	( 21)
1~4인	1,063 (-28)	1,037 (-26)	(-12)	(-39)	1,029 (-8)	(-22)	( 5)
5~9인	357 (-9)	335 (-22)	(-27)	(-16)	345 ( 11)	(-6)	( 27)
10~29인	120 (-24)	134 ( 14)	( 21)	( 6)	118 (-16)	(-17)	(-15)
30~99인	20 (-7)	20 ( 0)	(-1)	( 0)	24 ( 4)	( 5)	( 3)
100인 이상	2 (-2)	1 (-1)	(-1)	(-1)	1 (-0)	( 1)	(-1)
100~299인	2 (-2)	1 (-1)	(-1)	(-1)	1 (-0)	( 1)	(-1)
300인 이상	- (-)	- (-)	(-)	(-)	- (-)	(-)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자영자)>							
전 체	4,487 (-15)	4,443 (-44)	(-52)	(-36)	4,194 (-249)	(-202)	(-297)
100인 미만	4,486 (-16)	4,443 (-43)	(-52)	(-33)	4,194 (-249)	(-202)	(-297)
1~4인	4,481 (-19)	4,443 (-38)	(-52)	(-24)	4,193 (-250)	(-202)	(-297)
5~9인	2 ( 2)	1 (-2)	(-0)	(-3)	0 (-0)	( 0)	(-1)
10~29인	2 ( 1)	- (-2)	(-)	(-3)	0 ( 0)	( 1)	( 0)
30~99인	1 ( 0)	- (-1)	(-)	(-3)	- (-)	(-)	(-)
100인 이상	1 ( 1)	- (-1)	(-)	(-2)	- (-)	(-)	(-)
100~299인	1 ( 1)	- (-1)	(-)	(-2)	- (-)	(-)	(-)
300인 이상	0 ( 0)	- (-0)	(-)	(-1)	- (-)	(-)	(-)

주: ( )안은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증감규모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년도.

[부도 1] 외환위기 이후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규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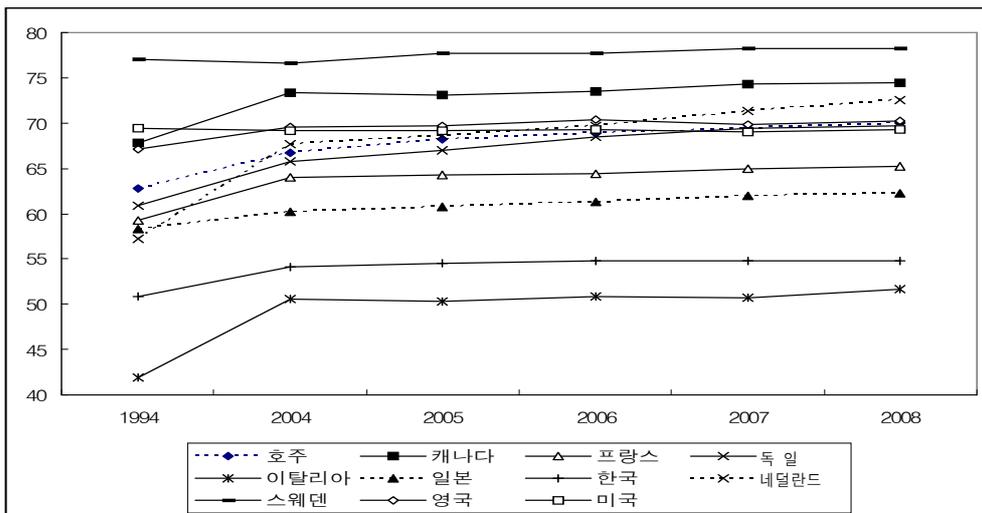
(단위: 천 명)



자료 : 통계청, KOSIS.

[부도 2] OECD 주요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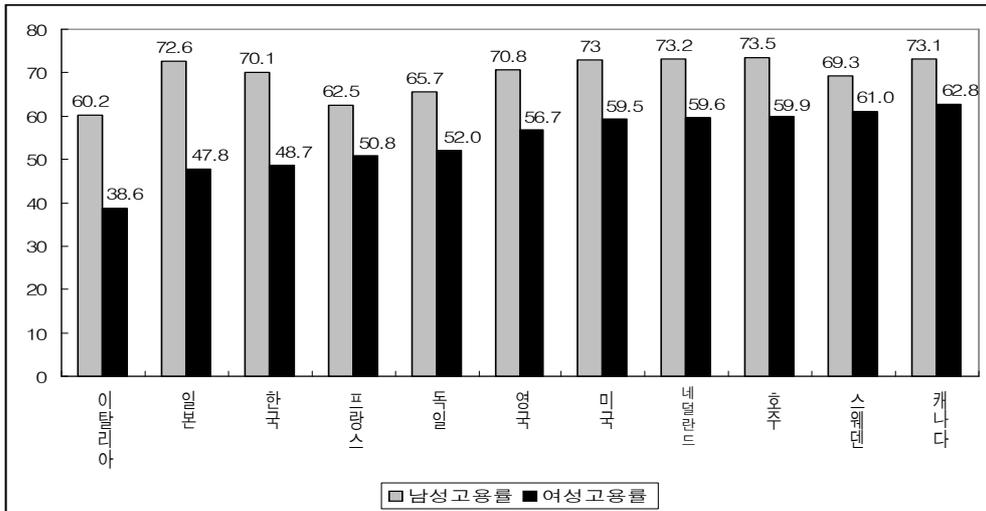


주: 15~64세 기준 통계임.

자료 :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9.

[부도 3] 주요국의 남성, 여성 고용률 비교(200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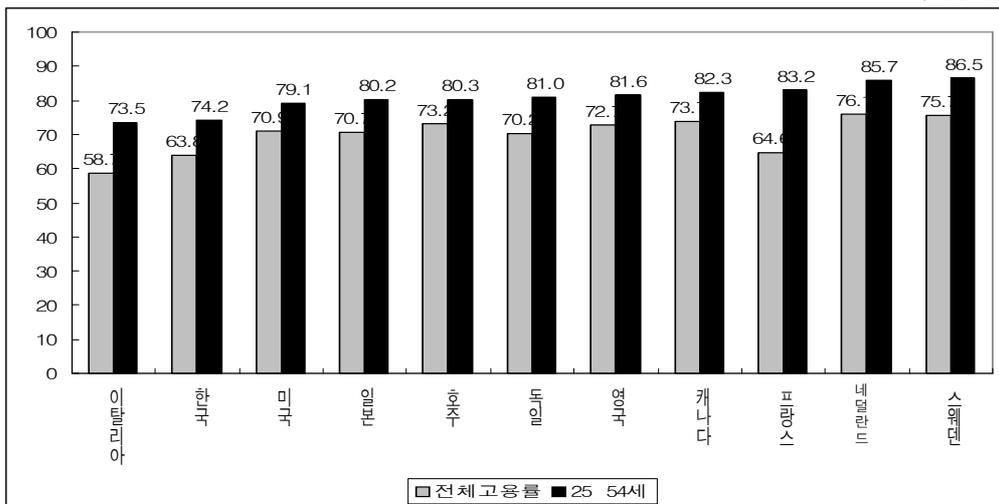
(단위: %)



자료: BLS, *International Comparisons of Annual Labor force Statistics, 2009*.  
통계청, KOSIS.

[부도 4] 주요국의 전체, 중장년 (25-54세) 고용률 비교(2008년)

(단위: %)



주: 15~64세 기준 통계임.  
자료: OECD, *OECD Employment Outlook, 2009*.